

국 제 수 산 월 간 동 향

202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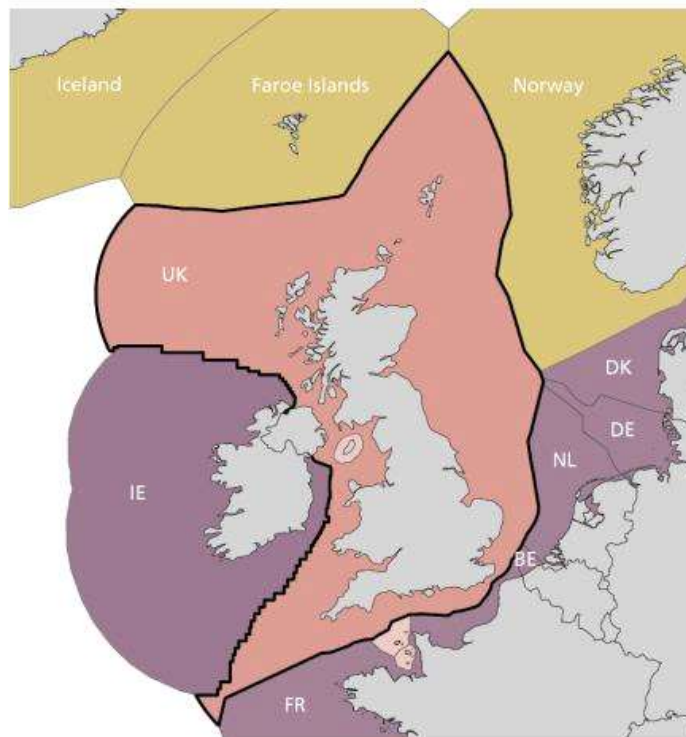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 외 수 산 협 력 센 터

목 차

1. 브렉시트에서 왜 어업이 중요한가?
2. 에콰도르 새우, 중국 수입량 감소에도 변함없는 수출 증가세
3. ISSF 투명성 강화를 위한 VOSI 개발
4. 일본, 상업 포경 기본 방침을 내각 회의에서 결정
5. 통발 어업이 해저에 미치는 영향
6. 중국산 장어구이와 양식 연어, 코로나로 인해 나타난 상반된 판매량
7. 캐나다 해양수산부 대서양 고등어 유어(Recreational fishing) 규제 시작
8. 쓰시마 난류계 근해 고등어 전년비 자원상태 좋을 것
9. 명태 미성어 부수어획 감소를 위한 어구 개발
10. 환경정의재단, 편의치적 대응을 위한 회의 개최
11. 세계 바다를 유린하고 있는 불법 선단
12. 중국 오징어잡이 원양어선 6척 출항

- 브렉시트 드라마에서 영국 해협 양측은 모두 협상 타결을 원하지만, EU는 “제값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영국은 “나쁜 협상 결과보다는 협상 결렬이 낫다”는 입장임.
- 지난 4년간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가라앉았음. 이번에는 어업권 이슈가 제기되었는데, 아마도 “왜 어업권인가?”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을 것임.
- 표면적으로, 어업은 양측에 매우 중요한 이슈는 아님. 어업은 영국 경제에서 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EU에서는 18만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의 650만명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임.



영국 및 주변국 해역 (출처: 영국 의회)

- 일부 내륙국가들은 선단 자체가 없음. 어업권의 변화가 오스트리아 또는 룩셈부르크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반면에 프랑스 대통령 임마누엘 마크롱은 “어업은 수호해야 할 프랑스의 중요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했음.
- 영국 해역의 입어권이 현재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영국 해역은 유럽인들이 저녁 식탁에 즐겨 올리는 청어, 고등어, 서대기와 조개류가 풍부하게 나는 곳임. 영국 선단의 규모가 선박 6,000척, 어민 12,000명으로 작지 않음에도, EU 트롤선들이 영국 해역에서 연간 70만톤 이상의 어획을 올리고 있음.
- EU 선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영국이 올해 말까지 여전히 EU법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임. EU 선단들은 연안으로부터 12해리(22km)를 제외하고는 영국 해역에 입어하여 조업할 수 있음. 하지만, 무엇이든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종별로 설정된 연간 쿼터를 준수해야 함.
- 어획물을 어디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이슈임. EU는 영국 해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이 EU 단일시장 전체에서 판매될 수 있다고 하였고, 지금까지 영국 해역에서 어획된 연어, 고등어와 대구의 90%는 대륙의 식탁에 올랐음.
- 하지만, 어업이 단순히 경제 이슈만은 아님. 영국 내 EU 회의론자들에게는 이 브렉시트 소설에서 하나의 신앙적인 이슈임. 통제권 환수에 의미가 있다면, 국경뿐만 아니라 바다에 대한 통제권도 환수해야 한다고 함. 더군다나 과거 막강한 해군력을 가졌던 국가로서는 특히 중요함.
- 영국의 외딴 연안 어촌 어민의 감소는 많은 영국인들이 느끼기에 국가가 상실한 역사적 위대함의 유적처럼 비칠 수 있음. 이는 영국 해협 반대편의

프랑스,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촌은 그 경제적 규모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이러하기에 마크롱은 자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없음.

※ 기사 출처: fis.com¹⁾

1) <https://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monthyear=&day=23&id=110104&l=e&special=0&ndb=0>
(20년 10월 23일 검색)

□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로 인한 중국 수입 감소

- 2014년 이후 에콰도르산 새우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의 상반기 수입량은 24만t으로 동기대비 11%하락하였으며 수입한 물량도 다 팔리지 않아 재고가 남아있는 상황임
- 특히 6월에 들어선 후 중국 시장은 약세를 보여 7월 에콰도르 새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된 후 하락세는 점점 더 뚜렷해짐

□ 수출국 다각화로 안정적인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는 에콰도르산 새우

- 중국 시장이 수입하지 않은 상품은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이 되었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에콰도르 새우의 누계 수출량은 44.5만t으로 동기대비 6%증가함
- 에콰도르 새우 산업 분석가 Gabriel Luna는 "8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있었으나 3대 주요 시장인 중국, 미국, 유럽의 판매량이 상당하여 생산과 수출의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밝힘
- 또한 그는 "에콰도르는 미국, 유럽연합 등의 국가들에도 수출하고 있고 그 수요도 상승하는 추세라 중국이 만일 에콰도르산 새우를 다시 수입하고자 한다면 지금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 언급

※ 출처: 수산양식망²⁾

2) http://www.shuichan.cc/news_view-408931.html (20년 10월 26일 검색)

□ MSC인증 및 FIP에 참여하는 선박 보여주는 온라인 선박 목록

- 국제수산물지속가능성재단(ISSF)가 “기타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선박(Vessels in Other Sustainability Initiatives, VOSI)”을 개발함
- VOSI는 온라인 선박 목록으로, 전 세계 해양관리협의회(MSC) 인증을 받았거나 다랑어 어업개선프로젝트(Fishery Improvement Project, FIP)에 참여하는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 ISSF 회장 Susan Jackson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향한 우리의 공동노력 최전선에 어선이 있다”고 말하며 “참여 선박들이 제3자의 감사절차를 거치는 ISSF의 새로운 선박 목록 VOSI 덕분에 FIP와 MSC 인증 선박들은 더욱 확실히 검증되어 투명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함
- 어떤 선박이 지속가능성을 위해 애를 쓰는지 알고 싶은 사람들은 VOSI를 통해 자신의 데스크탑에 선박 데이터를 다운 받을 수 있음
- VOSI 사용자는 선박 목록에서 조건을 걸어 검색할 수 있으며, 각 선박의 호출번호, 연식, 선박 치수 등에 대한 정보 또한 검색 가능함
- 각 선박 기록은 다음 정보를 보여줌
 - 선박 고유식별번호(UVI) 및 선박 국적 및 종류에 따른 UVI 종류
 - 선박의 PVR(ProActive Vessel Register)/대형선망선기록부 등재 여부
 - MSC 및 FisheryProgress.org 웹사이트에 나온 MSC인증어업/FIP정보에 대한 링크

- VOSI에는 현재 250척의 선박이 등록되어 있으며, MSC인증 다랑어 어업 및 다랑어 FIP에 초점을 맞추어 ISSF가 온라인에 개설한 시스템임
- VOSI는 대형 선망선만 등재되어 있으나, 향후 MSC인증 다랑어 어업 또는 다랑어FIP의 모든 어구가 포함될 것이며, 지금도 목록에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FIP 및 MSC인증 어업 이외에 선박들이 경주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또한 VOSI를 통해 알 수 있게 될 예정
- VOSI에 등재된 모든 선박은 MRAG Americas가 실행하는 제3자 정기 감사를 받음
- 감사 프로토콜은 MSC와 FisheryProgress.org와 함께 개발되었으며 ISSF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기사 출처: www.scoop.co.nz³⁾

<https://www.scoop.co.nz/stories/WO2010/S00180/issf-launches-additional-tool-for-transparency-with-new-vosi-list.htm>

(20년 10월 26일 검색)

□ 상업 포경 기본 방침 재고

- 정부는 13일, “고래류 지속적인 이용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방침” 개정을 내각 회의에서 결정했음
- 종래에는 조사 포경을 계속하기 위한 “고래류 과학 조사 포경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을 정했지만, 작년 조사 포경 정지와 상업 포경 재개를 계기로 명칭을 변경
- 포경 쿼터 산출 방법 등 새로운 항목을 만들었음
- 이 방침에 따라 포경에 관한 규칙이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현상 조치에 대한 근거 마련이 되어 주고 있음
- 포경 쿼터 산출에 관해서는 조사를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명기
- 방침에 상세한 산출 방법까지는 기재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에도 개정 관리 방식(RMP, 국제 포경위원회가 혼란을 높은 확률로 방지하기 위해 공인하고 있는 산출 방법)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음 (수산청 국제과)
- 방침에서는 기타 신규 항목으로써 포경에 대한 정부의 기본자세 등을 기록한 “시책 기본적인 방향”, 정부 예산으로 포경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제창한 “포경업의 원활한 실시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국제 포경 위원회(IWC) 탈퇴도 일본으로써 관련 국가·기관에의 조사 결과

제공 등을 실시하기 위해 정한 “국제 협력 추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위법 포경된 고래 고기를 일본 국내에서 유통 시키지 않기 위한 DNA 정보 관리
등을 실시하고자 한 “포경의 적당한 유통 확보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기재

- 동 방침은 작년 12월에 개정한 **포경의 지속적인 이용 확보에 관한 법률** (고래류
지속 이용법)을 바탕으로 정함

※ 출처: 미나토 신문⁴⁾

4)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05690> (20년 10월 27일 검색)

□ 새로운 연구 결과, 통발 어업이 해저에 미치는 영향 생각보다 커

- 플리머스 대학 과학자는 영국 남부 해안의 게, 바닷가재 통발에 카메라 설치 후 관찰한 결과 18개 종 중 14개 종 피해받음
- 통발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현재까지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옴
- 연구에 의하면 25~30%의 해저 종이 통발에 의해 훼손되거나 제거되었으며 장수하거나 성장이 더딘 종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과학자들은 권한 당국과 어업계가 수용 가능한 영향의 정도를 결정할 때 생태계와 사회적·경제적 고려사항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권고함
- 해안의 통발 어업 수를 제한하는 것이 어민과 해양 환경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음
- 업계와 환경의 이익이 균형될 수 있는 해결책 모색이 필요함

※ 기사 출처: sciencedaily.com⁵⁾

6

중국산 장어구이, 양식 연어 코로나로 인해 나타난 상반된 판매량

□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중국산 장어구이

-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일본에서 외식을 자제하고 식재료를 구매해서 먹는 경향이 뚜렷해짐
- 일본 장어구이 제품의 구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0%가량 증가하였고 중국산 장어구이의 생산량은 40%증가하여 최근 8년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음
- 일본 국내 공치조업량이 기록적으로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장어가 대체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
- 중국에서도 국경절기간 장어구이 가공제품의 오프라인 판매는 부진하였으나 알리바바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국산 장어구이 가공제품의 판매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코로나로 인해 판매량이 급감한 중국 국내산 양식연어

- 중국 베이징 신파디 시장의 연어에서 검출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어 판매가 중단되고 8월부터 연어 판매가 재개되었으나 6월과 비교했을 때 연어의 9월 판매량은 70%가량 급감함
- 중국 국산 양식연어 판매량은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기업의 판매량은 예년 수준의 30%도 회복되지 못한 상황
- 중국의 국산 연어 양식은 황해 및 보하이 냉수괴 해역, 칭하이시 저수지 등에서 양식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 국산연어 판매산업이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까지 겹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중국에서 유일하게 양식연어 수출을 허가받은 기업 민저(民泽)룽양협 생태수산양식 유한 공사는 6월부터 8월까지의 수출량은 70%를 넘겼으나 국내 소비 회복세는 30%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으며 현재 영세 연어 양식업자들의 형편은 더 심각한 상황임

※ 출처: 수산양식망/신경보⁶⁾

6) http://www.shuichan.cc/news_view-409234.html (20년 10월 26일 검색)
<http://www.chinanews.com/cj/2020/10-15/9313209.shtml> (20년 10월 26일 검색)

- 하루 어획한도 설정하는 Daily Bag Limit과 더불어 금어기, 어획 크기제한 증가
 - 캐나다 해양수산부가 1명당 20마리의 고등어 유어 어획한도를 설정하며 규제없는 고등어 어업에 중지부를 찍음
 - 이와 더불어 1월부터 3월까지 금어기를 적용할 예정이며, 유어 및 상업 어업에 적용되는 최소크기를 26.8cm까지 늘릴 계획임
 - 본 조치로 유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줄어드는 고등어 자원을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18년에 실시된 고등어 산란자원에 대한 자원평가는 2000년대 이전과 비교하여 86 퍼센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최저치를 기록함
 - 캐나다 해양수산부는 일일가방한도(daily bag limit)는 유어라는 가면 아래 행해지는 다량의 어획 가능성을 제거한다고 설명
 - 현재로서는 고등어 유어에 대한 어떠한 규칙도 없는 상황이며, 이에 양륙 또한 제한 없이 이뤄지고 있음
 - 일부 상업 어업허가를 받은 이들이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상업 어업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어구를 이용하여 상당량의 고등어를 어획하고 있으며, 양륙 보고와 관련 부다가 감시비용도 회피하고 있다고 함
 - 유어로 하루에 500 킬로그램이 넘는 고등어를 양육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
 - 연간 2,000~5,000 톤에 달하는 고등어가 미보고 어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업계는 캐나다 해양수산부가 자원평가 시 세인트로렌스 만에서의 고등어 산란 절정기를 빠뜨려 계속해서 고등어 자원량을 저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올해는 산란기를 제대로 측정하여서 다음 자원 추정치가 높게 나올 것으로 기대 중이나, 일일기방한도(bag limits)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출처: CBC 7)

<https://www.cbc.ca/news/canada/nova-scotia/mackerel-catch-limits-coming-to-recreational-fishery-1.5775120> (20년 10월 26일 검색)

8

쓰시마 난류계 근해 고등어 전년비 자원상태 좋을 것

□ 수산연구·교육기구, 쓰시마 난류계 전갱이, 고등어류, 정어리류 장기 어해황 (漁海況) 예보를 발표

- 참고등어 내유량은 전년 ('19년 11월~'20년 3월) 보다 좋을 것으로 전망
- 그 중, 근해역은 전년보다 좋은 자원상황으로 예측되며 연안역이 전년, 평년 (과거 5년 평균치) 정도
- 쓰시마 근해, 연안이 어장이 되면서 25~28cm의 0세어가 28~32cm의 1세어가 주로 어획됨
- 망치고등어는 근해역이 전년과 거의 동일, 연안역은 전년과 평년보다 낮았음
 - 쓰시마 근해, 동중국해, 고토나다·사쓰난이 어장이 됨
 - 근해역에서는 25~30cm의 0세어와 30~33cm의 1세어, 연안역에서는 30~37cm의 1세어 이상이 주로 어획
- 전갱이는 근해, 연안역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 쓰시마 근해, 연안역이 어장으로 형성되고 10~29cm의 0세어나 19~24cm의 1세어를 중심으로 24cm 이상의 2세어 이상도 어획됨
- 정어리는 전년을 웃돌고, 평년과 비슷, 어장은 나가사키현 이남 연안역
- 눈통멸과 멸치는 모두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년을 약간 밑돌 전망

※ 출처: 미나토 신문⁸⁾8)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06042> (20년 10월 27일 검색)

□ 명태 미성어 선별 장비 개발 기대

- 러시아 명태어업자협회(Pollock Catchers Association, PCA)와 러시아 극지수산업 및 해양학연구소(PINRO)는 명태 미성어 부수어획 감소를 위해 표층트롤의 새로운 분류 시스템 개발 중
- 2002년부터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특수 선별 장치를 갖춘 표층트롤을 이용해 명태를 어획해 왔으며 이는 의도하지 않은 미성어 어획의 30~50%를 감소함
- 총어획량과 트롤의 속도 증가로 인해 선별 능력이 감소하여 미성어 선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어구의 현대화가 필요함
- PINRO의 연구자들은 그물의 선별성과 방류되는 미성어의 생존율을 모두 향상할 수 있는 설계를 개발 중임
- 러시아의 한 자문관은 옹서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정의하고 어획 기록을 정립하기 위해 어업 규제 분야에서 중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언급함
- 선별적 장비의 개선으로 미성어에 대한 압력을 줄여 어류 자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출처: SeaFoodSource⁹⁾

출처 :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russia-designing-gear-to-reduce-juvenile-pollock-bycatch> (20년 10월 26일 검색)

□ 편의치적에 관한 전례 없는 회의가 10월 15일에 개최

- 참가국은 EC, 한국, 대만, 태국, 미국으로, 환경정의재단(EJF)의 새로운 보고서가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음. 참가국들은 편의치적에 대한 잠재적인 조치들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하였는데, EJF는 이것이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업부문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음.
- 회의 개최의 원인을 제공한 EJF의 새로운 보고서와 영화 Off the Hook에서는 편의치적이 어업과 불법어업 방지 노력에 끼치는 피해와 편의치적 근절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음.
- 어업 부문에서 편의치적은 국가들이 선박들에게 모니터링과 감시를 적게 받으면서 자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감시가 없는 상태에서 이 선박들은 파괴적인 불법어업에 관여하므로 어업에서 편의치적은 심각한 문제임.
- EJF의 보고서에 따르면, 편의치적은 기국 감시의 부재를 넘어, 불법어업 활동으로 인한 궁극적인 수혜자들을 적발하고 제재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그들에게 쉬운 탈출구를 제공함. 선박들은 “깃발 교체”를 통해 선박의 정체와 소유에 관하여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깃발 교체는 또한, 국가간의 협조가 없을 경우에는,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함.
- 편의치적에 관여하는 일부 국가들은 외국 선박들에게 요금을 받고 등록을 편리하게 하고 있음. 다른 일부 국가들은 편의치적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을 수 있으나, 느슨한 회사법, 또는 느슨한 집행을 통하여, 등록된 선박들이 결과적으로 외국의 지배하에 있게 됨.

- 예를 들어, 가나에서는 트롤선의 외국 소유는 불법으로 되어 있으나, 외국, 특히 중국 기업들은 불투명한 기업구조를 이용하여 선박을 수입하여 등록하고 허가를 받고 있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질적인 소유주의 정체는 숨겨지고, 해당 선박들의 불법 활동 관여에 대한 제재는 어려워짐. 이와 같은 불투명한 기업구조는 과세당국 및 기타 정부기관의 조사도 어렵게 함.
- 회의에서는 참여국들이 편의치적을 자유롭게 제공하는 타국들을 막기 위한 조치들과 자국민들이 편의치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논의되었음.
- 이 중에는 자국민이 불법어업에 관여하거나 불법어업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때, 외국 깃발 아래 운항했더라도 제재를 부과하고, 선박 등록 시 실질적인 소유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음. 이들 주요 어업 국가들은 지역수산관리기구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음.
- EIJ 사무국장 Steve Trent는 “이들 주요 어업국들이 편의치적에 대하여 연합된 전선을 구축한다면, 불법어업에 대한 세계적인 대응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 대표자들이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하였음.

※ 기사 출처: www.fis.com¹⁰⁾

10) <https://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l=e&id=110091&ndb=1> (20년 10월 23일 검색)

□ 중국의 불법 조업

- 일본 본토 서부 해안가에 텅빈 목조 선박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음. 이는 북한 난파선들임
- 북한 선박들을 보다 위험한 먼 바다로 향하도록 만든 것은 동해안에서 불법 조업하고 있는 중국 선박들의 증가 때문임
- 선박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동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선박들은 1000여 척으로, 오징어 조업선들임
- 중국 오징어 선박들의 남획으로 일본과 한국의 오징어 생산량은 83년에 비해 1/5로 급감함
- 중국 선박들의 조업은 대부분 무허가 조업이고, 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
- 중국의 불법 선단이 세계 최대 규모이지만, 이란도 소말라아 등에서 불법 조업하고 있음
- 중국은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제도, 아르헨티나 근처에서도 비규제 오징어 어업을 하고 있고, 남미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음
- 오징어 수명이 1년임을 감안(빠른 번식력)하면 남획의 규모는 심각함

□ 불법 어업의 심각성

- 한 연구에 따르면, 1300여 개의 상업적 어종 중 82%가 과도어획 중임
- 한 환경 NGO에 따르면, 대부분의 불법 어업은 허가받은 선박들에 의해 일어남 (초과 어획, 허위 어획보고, 금지어구로 인한 혼획 등)
- 워싱턴의 싱크탱크는 세계 어획량의 20-50%가 불법 어업 생산물이고, 그 금액은 36조원으로 추산
- 불법 선박들의 규모는 크나 단속 당국의 역량은 약함
- 코로나로 인해 WCPFC 선망선의 오피서버 승선 면제는 우려스러움
- 아시아 어선 내 인권 문제의 심각성 (신체 손상, 장시간 노동, 급여 체납, 식료품, 선박 위생 등)
- 대만 선박 내 환경 및 노동 문제로 EU는 수입 중단 위협을 가하고 있고, 미국도 대만을 주시 중

□ 불법 어업에 대한 대응

- 불법 어업에 대한 처벌이 약함. 어업 감독관은 인권, 마약, 기타 범죄에 대한 관할권 없음
- 선명 변경, 편의치적, 불투명한 합작 뒤에서 선주들은 처벌을 피해감
- 모니터링 기술의 발전은 불법 어업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

- 호주, 뉴지가 17개 태평양 도서국의 회유성 참치 관리를 지원 (위성으로 선박 위치 감시)하고 있음
- 전자 모니터링을 선내에도 실시하는 것이 다음 단계, 선박 내 수상한 행동의 적발을 위한 기술 개선 중

□ 수산보조금

- 무엇보다, 선단에 대한 보조금 삭감이 필요
- 연간 35조원의 수산보조금 중 22조원이 해로운 보조금 (연료)
- 보조금이 없을 경우, 동부 태평양, 인도양에서 중국의 불법 선단이 없어질 것
- 수산보조금과 함께 강제노동이 없어질 경우, 공해 어업의 절반이 수익성 없어질 것
- 해로운 보조금의 일부가 연안 어업 관리에 쓰인다면 식량안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
- 최근 중국은 WTO에서 자국의 보조금 삭감은 반대하고 타국의 보조금 삭감을 주장, 불법 선단과 함께 중국의 평판이 악화 중

※ 기사 출처: www.economist.com¹¹⁾

11) <https://www.economist.com/international/2020/10/24/illegal-fishing-fleets-plunder-the-oceans>
(20년 10월 26일 검색)

□ 아오양 어업유한공사 오징어 어선 출항

- 아오양 어업유한공사는 2억위안(한화 약 338억원 상당)을 6척의 오징어 어선 건조에 투자함
- 10개월의 건조 기간을 거쳤으며 해당어선은 길이 72m, 총 중량 1220t, 적재량 1000t의 선진화된 오징어 조업 설비를 갖춘 6척의 용접식 오징어 어선임
- 해당 원양어선들은 남중국해 부근 스다오에서 190여명의 선원을 태우고 페루,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 오징어 조업을 할 예정
-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지에다오 원양어업공사와 란쑤해양경제가 함께 진행하는 오징어 조업사업으로 어업자원이 고갈되고 조업 비용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
- 해당 어선들이 조업한 오징어는 운송선을 통해 중국 국내로 들여와 심층가공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될 예정

※ 출처: 치루만보¹²⁾

12) <https://sjb.qiwb.com.cn/qiwb/content/20201014/ArticleWR03007FM.htm> (20년 10월 26일 검색)